



원자력 전공자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후기

박경준

에너지엔 사원

반갑습니다. 저는 한국원자력산업협회
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원자력 전공자
중소기업 인턴십을 지원하여 2021년 7월부터
2021년 10월까지 인턴사원으로서 원자력 콘텐
서, 열교환기, 급수가열기, 탈기 등 의 원자력
및 발전소에 필요한 기기들을 연구하며 설계부
터 제작까지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4개
월간 인턴 생활을 하였으며 4개월 이후 2021년
11월부터는 정식 사원으로 발령받아 현재까지
도 일을 하고 있는 지원자입니다.

제가 지원하게 된 계기는 대학교 4학년이 되
던 해에 수업도 그리 많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
학교도 가지 않을뿐더러 취업에 대한 걱정, 졸
업에 대한 걱정 등을 하며 있을 때 인턴십 지원
사업이 눈에 들어와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
사용하고 남들보다 먼저 일에 대한 경험을 쌓고
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

지원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자기소개
서였습니다. 자격증과 토익점수와 경험도 하나
없었고 아직 졸업도 하지 못한 4학년이었기 때
문에 자기소개서에 적을 말들이 생각나지 않아
시간을 많이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

그리하여 저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
로 자신 있었던 과목을 중점을 두어 자기소개서

를 적었고 앞으로 더 배워보고 싶은 것들에 대
한 내용으로 채워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었
습니다.

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을 수 있던 가장 좋
은 점은 '경험'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느 기업이
나 어느 곳에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
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 경험을 쌓기
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기회도 많지 않으
며 원자력이라는 전공을 살리기도 쉽지 않습니
다. 하지만 이 인턴십 프로그램은 원자력과 관련
된 기업들이 속해 있으며 원자력 전공자들이 쉽
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제약이 없이 원하는
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
고 생각합니다. 또한 기업이 먼저 선발하는 것이
아니라 원자력산업협회에서 선발하여 기업에게
넣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평하기도 하면서
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
주는 방식이 관촬았던 것 같습니다.

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참여기업에 대한 정보
가 부족한 점입니다.

대부분의 기업이 소규모 기업이다 보니 기업
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기업이 무슨 일을 하
는지, 근무 환경은 어떠한지, 숙소가 제공되는지
등의 정보가 알 수 없어 어떤 기업을 지원하여

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끝으로 저는 인턴십으로 지원하여 여러 원자력에 관련된 업무를 접하고 사람들 함께 소통하며 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방식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고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일들을 처음 접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직접 해보면서 느끼기 때문에 더 빠르게 배울 수 있고 몸과 머리로 부딪혀 익히기 때문에 좀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배움인 것

같습니다. 또한 정식직원이 되면서 제 첫 직장이 되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전반적인 회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여 받는 첫 월급은 정말 값진 성과라고 생각 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저에게 기회를 주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.

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길잡이 같은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**KIIF**